

현대 중국어 2음절 단일 품사어 ‘X+然’의 생성과 도출

장 호 득

(단국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본고는 『現代漢語詞典』(第7版)에 실린 어휘를 전수 조사하여 그중 현대 중국어 2음절 단일 품사어 ‘X+然’ 구조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분석하여 구명(究明)하였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대 중국어 ‘X+然’ 구조에 보이는 단일 품사어는 형용사, 구별사, 부사, 접속사, 동사, 명사가 있으며, 그중 형용사가 가장 많다. 또 기존의 학설처럼 ‘-然’이 형용사와 부사의 접미사임을 보여 주고 있지만 동사, 구별사, 접속사 등의 접미사로도 쓰이고 있다.

둘째, ‘X+然’은 형태론적 낱말 기능뿐 아니라 어근구(Root Phrase)의 투사를 통해 통합합성어(synthetic compound)를 형성하여 통사적 연산에서 분산적 역할로 생성·도출된다.

결론적으로 ‘X+然’은 ‘然’이 접미사로서 곡용과 활용 없이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y) 역할을 하면서 형태·통사 층위에서 내현적 분산형태(covert distributed morpheme) 방식으로 생성·도출되고 있는 통합합성어이다.

주제어 : 현대 중국어, 단일 품사어, X+然, 2음절, 생성, 도출

1. 서론

본고는 『現代漢語詞典』(第7版) 올림말 중 2음절 단일 품사어¹⁾ ‘X+然’ 구조를 전수 조사하여 분류한 후 그 형태·통사적 특징을 구명(究明)하고자 한다.

본 주제 관련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문언문 연구에서 다루어졌는데 거의 대부분 학자들은 ‘然’을 형용사나 부사의 후첨(後綴) 또는 사미(詞尾)로 보고 있다.²⁾ 그러나 본 주제 관련 현대 중국어 연구, 특히 본고처럼 『現代漢語詞典』(第7版)에서 어휘를 전수 조사하여 추출하고 분류한 후 분석한 연구는 없다. 이에 따라 본고는 선행 연구는 소략하고 분산형태론(Distributed Morphology)³⁾의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분산형태론은 Halle & Marantz(1993, 1994)에 의해 제안된 문법 이론이다. 이 이론은 생성문법의 전통 어휘론과 달리 통사부 입력 단위를 ‘단어’가 아닌 ‘형태소’로 보면서 단어 형성 부문도 ‘어휘부’가 아닌 ‘통사부’로, 형태-통사부의 관계를 ‘순차적, 분리적 관계’가 아닌 ‘잠재적 비분리적 관계’로 본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현대 중국어 ‘X+然’ 구조를 재분석하여 단어 형성의 특징을 구명하고 이를 다시 통사적 연산 과정의 분산된 모습으로 파악하여 형태-통사적 정체성을 밝히고자 한다. 즉, “단어 구성도 통사적 구성과 마찬가지로 통사부 연산을 통해 형성된다는 분산형태론 입장을 옹호한다.”는 박소영(2011: 686)의 관점에 동의하여 『現代漢語詞典』(第7版)의 ‘X+然’ 구조로 된 어휘 중 2음절 단일

1) 본고에서 사용하는 ‘단일 품사어’란 『現代漢語詞典』(第7版) 올림말에서 하나의 품사만 제시하고 있는 어휘를 가리킨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단(單)-’을 접두사로, ‘-어(語)’를 접미사로 풀이하고 있으므로 ‘단품사어(單品詞語)’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풀어쓰기로 한다.

2) 전자에 속하는 학자는 張貽惠(1957), 周秉鈞(1978), 蔣禮鴻·任鐘善(1984), 楊伯俊·何樂士(1992), 蒲立本(孫景濤 譯, 2006) 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학자는 廖序東(1981), 董琨(1986), 許仰民(1988) 등이 있다.

3) 분산형태론의 이론적 동향에 대한 내용은 박소영(2017)을 참조하기 바람.

품사어 89개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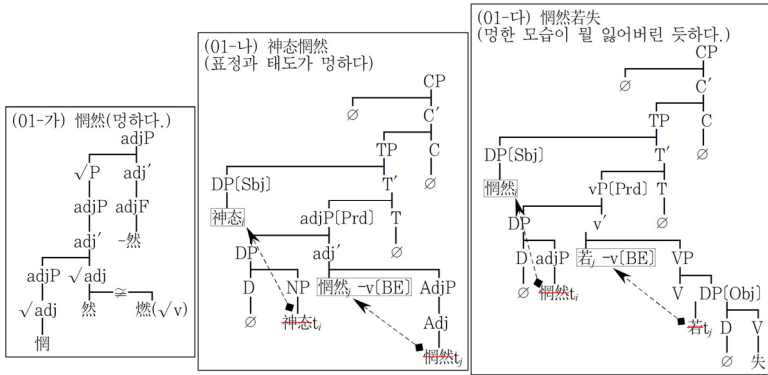
II. 형용사의 생성과 도출

『現代漢語詞典』(第7版)에 실린 'X+然' 구조로 된 어휘 가운데 2음절 단일 품사어는 총 89개이다. 그중 형용사 올림말이 60개이고, 부사가 23개, 접속사 4개, 동사와 명사가 각각 1개이다.

품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동사	명사	합계
개수	60	23	4	1	1	89
백분율	67.4%	25.9%	4.5%	1.1%	1.1%	100%

본 장에서는 『現代漢語詞典』(第7版)에서 풀이하고 있는 2음절 단일 품사어 'X+然' 구조 가운데 제일 많은 형용사⁵⁾를 대상으로 분석하겠다. 낱말의 구조를 재분석한 아래 수형도⁶⁾를 보자.

- 4) 藹然, 安然, 黯然, 昂然, 盎然, 傲然, 勃然, 慘然, 灿然, 诧然, 怅然, 超然, 猝然, 定然, 陡然, 顿然, 愕然, 幡然, 翻然, 愤然, 奋然, 公然, 固然, 骇然, 悍然, 酣然, 赫然, 轰然, 哄然, 忽然, 哗然, 焕然, 涣然, 恍然, 或然, 豁然, 既然, 截然, 尽然, 竟然, 迥然, 居然, 慨然, 了然, 凜然, 茫然, 贸然, 渺然, 漠然, 默然, 蓦然, 木然, 飘然, 歉然, 悄然, 全然, 仍然, 悚然, 虽然, 索然, 肃然, 泰然, 坦然, 陶然, 天然, 突然, 徒然, 宛然, 枉然, 惘然, 巍然, 未然, 蔚然, 显然, 悻然, 怡然, 屹然, 毅然, 悠然, 油然, 犹然, 跃然, 昭然, 骤然, 卓然, 孜然, 自然, 纵然. 이후 장절에서 '哄然, 突然, 自然, 全然, 忽然, 固然, 未然'의 단어 부분 재분석은 장호득의 미간행 논문 「현대 중국어 'X+然'(단일 품사)과 그 동형 한자어의 형태론적 증한 대조 분석」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5) 형용사 'X+然' 구조가 총 60개이지만, 이를 다시 특징별 'X'의 품사 차이, 통사적 도출에 따른 차이 등에 따라 하위 범주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것 2~3개를 골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 6) 본고의 수형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어휘 배열 층위: DP(한정사구, 'NP'는 비한정적 개념임.), NP(명사구), VP(동사구), AdjP(형용사구, 중국어에서 술어로 쓰이는 경우도 포함), DetP(Determiner Phrase, 관형사구, 표지



‘的’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AdvP(부사구, 표지 ‘地’의 출현 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 CmpP(보어사구, 표지 ‘得’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PP(전치사 구), NegP(부정사구), ModP(Modal Phrase, Modality Phrase, 양태사구), √P(Root Phrase, 어근구); Num(수사), Cls(양사), N(명사), Pron(대사), D(한정사), Det(관형사), V(동사), Adj(형용사), Dstn(Distinctive, 구별사), Mmt[mimetic words, 상태사, cf. onomatopoeic words(의성어)], Aux(조동사), Adv(부사), P(개사), Vrs[부동사(副動詞), 결과(resultative)], Vdr[부동사(副動詞), 추향(direction)], Vpt[부동사(副動詞), 가능(potential)], Vdg[부동사(副動詞), 정도(degree)], Vst[부동사(副動詞), 상태 (stative)], Neg(Negative, 부정사), Modl(양태사), Aux(조동사), DetM(Determiner Marker, 관형격 표지), AdvM(Adverbial Marker, 부사격 표지), CmpM(Complement Marker, 보격 표지), AspM(Aspectual Marker, 상 표지), TnsM(Tense Marker, 시제 표지), √(Root, 어근), ∅(영형태), '(prime, 어긋점, 바, 중간 계층), xF[x affix, x화 기능범주(접사), Funtional affix; affix(접사, 詞綴), prefix(접두사, 前綴), infix(접요소, 中綴), suffix(접미사, 後綴)] (2) 사건구조화 층위(첫 철자 소문자): [BE, DO, BECOME, CAUSE-BECOME]; vP, adjP(형용사가 술어로 쓰이는 경우); v, adj cf. 소문자는 분산형태론의 통합합성어에서 통사구조로 도출되기 전의 상태 또는 형태소를 의미함. (3) 사건과 현실 연계 층위: TP(시제사구), TopP(Topic Phrase, 주제구), PrtP(조사구, 어기사구, Particle Phrase); T(시제사), Top(Topic, 주제), Prt(조사, 어기사, 어소) cf. INFL(Inflection, 굴절소), C(Complementizer, 보문소) (4) 문장 유형 확정 층위(sentence type): CP(보문사구), MdP(Mood Phrase, 서법구); C(보문소), Md(서법 표지) cf. 서실법(敍實法, fact mood), 서상법(敍想法, thought mood). (5) 역할체 모듈(Module) 구현 층위: Sbj(Subject, 주어), Prd (Predicate, 술어), Obj(Object, 목적어), Spec(Specifier, 명시어), Advl(Adverbial, 부사어), Cmpl(Complement, 보어), Mood(Mood Particle, 서법어), Mrkr(Marker, 표시어) cf. 생성문법 용어: Head(핵어; 中心詞), Specifier(Spec; 명시어/지정어; 指定語), Attribute(귀속어; 归属語), Complement(보충어; 補語), Adjunct(부가어/첨가어/부사어; 附加語), 종속어[(dependents): Pre-adjunct(pre-nominal), Post-adjunct].

(01-가)⁷⁾는 ‘惘然’이 어근구(√P)로 투사되어 다시 형용사화 기능범주(adjF) ‘-然’과 융합하여 통합합성어(synthetic compound)인 형용사성 어근구(adjP)를 생성하고 있다. 즉, 형용사성 어근(√adj) ‘惘’과 형용사성 어근 ‘-然’⁸⁾이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된 후 형용사화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y)를 내현적(covert) 상태⁹⁾-형태적으로는 형용사성 어근 ‘-然’과 형용사성 기능범주 ‘-然’이 융합되어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음-로 유지하면서 통사적 연산에서 그 특징을 드러내는 분산형태적(distributed morphological) 특징을 띠고 있다. 하영삼(2014)에 따르면 ‘惘’은 “마음(心)이 그물(罔) 속에 갇힌 듯 멍한 상태”¹⁰⁾를 뜻한다. 이로

-
- 7) 본고는 ‘AdjP’, ‘adjP’처럼 첫 번째 영문을 대·소문자를 구분하는데, 전자는 ‘기본 어휘 배열 층위’ 등에서 사용하고, 후자는 ‘분산형태론’, ‘사건구조화 층위’에서 사용한다. 즉, 후자는 아직 완전히 문자화(spell-out)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특징을 내현적(covert)으로 내포하고 있는 상태(‘-성’으로 표시)를 말한다. 부호 가운데 ‘≅’는 ‘의미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가차 관계 등의 연결 고리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는 ‘의미적으로 같지도 않고 연결 고리도 약한 경우’를 가리킨다. 또 수형도에서 전통적인 부호 ‘^’를 사용하지 않고 ‘┌’, ‘└’를 사용하는 것은 ‘핵어’를 명확하게 보여 주기 위함이다. 즉, ‘니’, ‘ㄴ’의 세로축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핵어이다.
- 8) 현대 중국어 관점에서 ‘-然’이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고 실질적인 의미도 없으므로 어근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겠지만, 본고는 ‘-然’이 변천해 오는 과정에서 기능적인 의미가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자질(semantic feature)인 ‘[+그러하다]’는 유지하면서 기능 범주가 추가적으로 부여된 분산형태론의 관점에서 있으므로 어근구를 형성할 때는 ‘어근’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趙元任도 「賴四卡」(막차)와 「賴三卡」(막차 바로 앞 차) 등을 예로 들며 중국인들은 의미가 없는 음절에도 뜻을 추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적고 있다. “……因爲用單音節表達意義太普通了，所以說話或寫文章的人，常把本來沒有意思的音節也加了意思進去。比方……上海的電車，夜裡最後一部叫「賴四卡」，是英文last car的上海音。因爲倒數第二班車，對乘客來說也很重要，而「四」之前是「三」，于是他們就把它叫做「賴三卡」。”(趙元任著，丁邦新譯，《中國話的文法》，臺灣學生書局，1994，75쪽.)
- 9) 형태로만 볼 때는 ‘惘然’，‘果然’，‘依然’，‘未然’，‘突然’，‘忽然’ 등이 명사인지，동사인지，형용사인지，부사인지，접속사인지 등을 구별할 수 없고 통사적 연산과 함께 살필 때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정체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는 그 정체성을 내현적으로 갖추고 있기에 사전의 올림말에 예문을 제시하면서 품사 표시가 가능한 것이다.
- 10) 【惘】(명할-망): “형성. 心(마음-심)이 의미부고 罔(그물-망)이 소리부로, 마음(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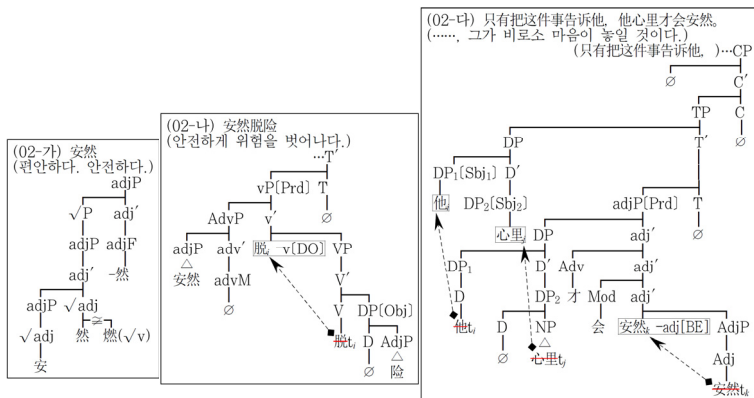
볼 때 ‘惘’은 형용사 ‘멍하다’가 (01-가)처럼 형용사성 어근으로 투사된다고 볼 수 있다. 또 『現代漢語詞典』(第7版)은 ‘惘’을 품사 표시 없이 “실의하다”로 풀이하고 있다.¹¹⁾ 이렇게 볼 때 ‘실의한 모양, 실망한 모양.’이란 뜻의 형용사성이 있으며, (01-가)의 ‘惘’은 이렇게 먼저 형용사성 어근으로 투사되었다가 ‘然’을 만나 어근구를 형성한 후 다시 형용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01-나)의 ‘惘然’¹²⁾은 ‘멍하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서 기본 어휘 배열 층위¹³⁾에서 형용사구로 투사된 후 사건구조화 층위에서 경형용사구¹⁴⁾로 투사되어 술어(Prd, Predicate)로 생성·도출되고 있다. (01-다)는 형용사성 통합합성어가 영형태의 한정사(D)와 함께 한정사구로 투사되어 시제사구(TP)의 명시어로 인상된 후 주어로 생성·도출되고 있다.¹⁵⁾ 이처럼 형용사 ‘惘然’은 통사적 생성·도출에서 주어와 술어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然’을 기존의 관점처럼 형용사 접미사로 볼 수 있지만 재분석해 보면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통합합성어를 생성한 후 통사적 도

이 그물(罔) 속에 갇힌 듯 멍한 상태를 말한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221쪽]

- 11) 【惘】失意；精神恍惚：惘惘 | 迷惘 | 惘然。”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1355쪽.]
- 12) 【惘然】[wǎngrán][形]失意的样子；心里好像失掉了什么东西的样子：神态惘然 | 惘然若失。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1355쪽.]
- 13) ‘기본 어휘 배열 층위’, ‘사건구조화 층위’ 등에 대해서는 김중호(2018)를 참조 바람.(김중호, 『중국어 최소주의 생성문법 13강』,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관 텐즈원, 2018, 171쪽).
- 14) 영어는 동사만 술어 역할을 하기에 ‘경동사구(vP)’만 사용하지만 중국어나 한국어는 형용사도 술어 역할을 하기에 본고는 ‘경형용사구(adjP)’도 사용하기로 한다. 형용사뿐 아니라 상태, 관계 등은 구체적인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것(‘DO’류)이 아니므로 수형도에서 ‘BE’로 표시한다.
- 15) ‘惘然’을 부사어로 보고 ‘若’을 수식하는 구조로 보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若’이 ‘같다[等]’의 의미이므로 ‘惘然’과 의미적으로나 통사적으로나 통합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본고는 주어로 본다.

출을 예비하고 있는 잠재적인 모습¹⁶⁾도 띠고 있다. 분산형태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X+然' 구조는 겉으로는 형태·통사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내현적 통합합성어이다.



(02-가)는 ‘安然’이 어근구로 투사되어 다시 형용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즉, 형용사성 어근 ‘安’과 형용사성 어근 ‘然’이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된 후 형용사화 기능범주를 내현적 상태-형태적으로는 형용사성 어근 ‘然’과 형용사성 기능범주 ‘-然’이 융합되어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유지하면서 통사적 연산에서 그 특징을 드러내는 분산형태를 띠고 있다.

‘安’은 하영삼(2014)에 따르면 “宀(집-면)과 女(여자-여)로 구성되어, 여성(女)이 집(宀)에서 편안하게 머무는 모습”¹⁷⁾이다. 이로 볼 때 ‘安’

16) 실제로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이 이미 갖추어져 하나하나의 모듈(module)로 준비되어 있다가 실제 생성·도출 과정에서는 ‘사건을 현실과 연계시키는 층위’, ‘역할체로 구현하는 층위’, ‘문장 유형 확정 층위’에서 바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나 핸드폰도 내부적으로는 부품 하나하나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작동되지만 사용할 때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 않아도 되며 하나하나 구동시키지 않아도 된다. 즉, 이미 갖추어진 모듈을 필요에 따라 구현시키면 되는 원리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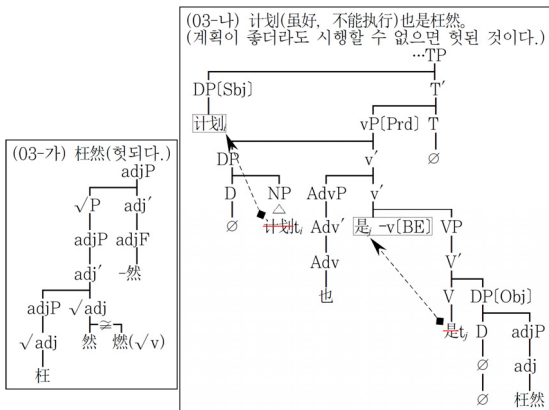
의 의미는 형용사 ‘편안하다’를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02-가)처럼 ‘安’이 형용사성 어근으로 투사된다고 할 수 있다. 또 『現代漢語詞典』(第7版)은 ‘安’을 ‘안정적이다’, ‘안정시키다’, ‘평안하다’, ‘설치하다’, ‘어디’, ‘성씨’ 등으로 풀이하면서 형용사, 동사, 명사, 대사 등 다양한 품사를 싣고 있다.¹⁸⁾ 이렇게 확장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원형 의미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등으로 볼 수 있으며 (02-가)의 ‘安’은 이렇게 형용사성 어근으로 투사되었다가 ‘然’을 만나 어근구를 형성한 후 다시 형용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02-나)의 ‘安然’¹⁹⁾은 사전의 올림말 어휘로는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서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로 투사된 후 영형태의 부사격 표지와 함께 부사어로 도출되어 경동사구 ‘脱’를 수식하고 있다. (02-다)는 형용사 ‘安然’이 형용사구로 생성된 후 사건구조화 층위에서 경형용사구로 투사되어 술어로 도출되고 있다. 이렇듯 ‘安然’은 부사어와 술어로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安然’이 형용사이지만 그대로 바로 부사어 역할로 도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17) 【安】(편안할-안): ‘회의. 宀(집-면)과 女(여자-여)로 구성되어, 여성(女)이 집(宀)에서 편안하게 머무는 모습으로부터 便安(편안)함과 安全(안전)함의 의미를 그렸다. 이후 편안하게 느끼다, 安定(안정)되다, 안정시키다 등의 뜻도 나왔다.”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417쪽]

18) “【安】①[形]安定：心神不安 | 坐不安，立不稳。②使安定：安民 | 安神 | 安邦定国。③对生活、工作等感到满足合适：安于现状 (满足于目前的状况，不求进步) | 安之若素。④平安；安全 (跟“危”相对)：公安 | 治安 | 转危为安。⑤使有合适的位置：安插 | 安顿。⑥[动]安装；设立：安门窗 | 安电灯 | 咱们村上安有线电视了。⑦[动]加上：安罪名 | 安个头衔。⑧[动]存着；怀着 (某种念头，多指不好的)：你安的什么心？⑨ (Ān) [名]姓。【安】<书>[代]疑问代词。①问处所，跟“哪里”相同：而今安在？②表示反问，跟“怎么、哪里”相同：不入虎穴，安得虎子？ | 安能若无其事？【安】[量]安培的简称。导体横截面每秒通过的电量是1库时，电流强度就是1安。”[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6쪽]

19) “【安然】[ānrán][形]①平安；安安稳稳：安然无事 | 安然脱险。②没有顾虑；很放心：安然自若 | 只有把这件事告诉他，他心里才会安然。”[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7쪽]

이렇게 기능범주를 내현적 상태-형태적으로는 형용사성 어근 '然'과 형용사성 기능범주 '-然'이 융합되어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음-로 유지하면서 통사적 층위에서는 그 특징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安然'이 분산형태론의 내현적 통합합성어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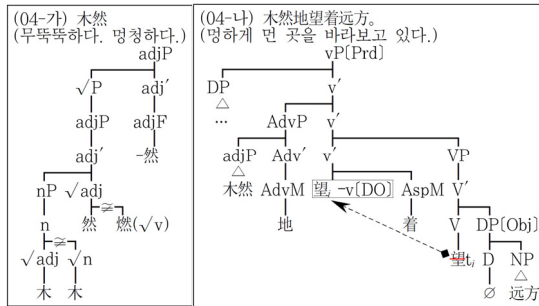
(03-가)는 '枉然'이 어근구조 투사되어 다시 형용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즉, 형용사성 어근 '枉'과 '然'이 결합하여 어근구조 투사된 후 형용사화 기능범주를 내현적 상태로 유지하면서 통사적 층위에서 그 특징을 드러내는 분산형태를 취하고 있다. '枉'은 하영삼(2014)에 따르면 “나무가 굽다”²⁰⁾라는 뜻이다. 즉, '枉'의 원형 의미는 형용사로서 '굽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現代漢語詞典』(第7版)은 '枉'을 '굽다', '굽게 하다', '헛되다', '헛되이' 등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²¹⁾ '枉然'이 '헛되다'는

20) 【枉】(굽을-왕): “형성. 木(나무-목)이 의미부고 王(임금-왕)이 소리부로, 나무(木)가 ‘굽다’는 뜻이며, 이로부터 왜곡이나 정직하지 않다 등의 뜻이 나왔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467쪽]

21) “【枉】①弯曲或歪斜, 比喻错误或偏差: 矫枉过正. ②使歪曲: 枉法. ③冤屈: 冤

뜻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03-가)는 원형 의미와는 간접적으로 연결되며 ‘헛되다’의 확장 의미가 직접 관여하여 형용사성 어근으로 투사되었다가 ‘然’을 만나 어근구를 형성한 후 다시 형용사와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03-나)의 ‘枉然’²²⁾은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서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로 투사된 후 사건구조화 층위에서 영형태의 한정사와 함께 한정사구(DP)로 투사되어 ‘是’의 목적어로 생성·도출되고 있다. 이렇듯 형용사성이 목적어가 되려면 영어에서는 명사절, 동명사,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등으로, 한국어에서는 ‘-로’, ‘-기’ 등으로 명사화시켜 이를 외현적(overt)으로 드러내는데, 중국어는 영형태의 내현적인 상태로 있다가 통사적 연산 과정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가)는 ‘木然’이 어근구로 투사되어 다시 형용사와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즉, 명사성에서 파생된 형용사성 어근 ‘木’과 형용사성 어근 ‘然’이 결합하여 형용사성 어근

枉 | 枉死. ④白白地; 徒然: 枉然 | 枉费. ⑤ (Wǎng) [名]姓.”[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1354쪽.]

22) 【枉然】[wǎngrán][形]得不到任何收获; 白费力气; 计划虽好, 不能执行也是枉然。”[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1354쪽.]

구로 투사된 후 형용사화 기능범주를 내현적 상태로 유지하면서 통사적 층위에서 그 특징을 드러내는 분산형태적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하영삼(2014)에 따르면 ‘木’은 “즐거움을 중심으로 잘 뻗은 가지와 뿌리를 그려 ‘나무’를 형상했다.”²³⁾라는 뜻이다. 이로 볼 때 ‘木’은 명사로서의 원형 의미 ‘나무’에서 나무의 성질을 가진 속성으로 확장되어 형용사성 어근 ‘然’과 함께 결합하여 형용사성 어근구로 투사된다고 할 수 있다. 또 『現代漢語詞典』(第7版)은 ‘木’을 ‘수목(樹木)’, ‘질박하다’, ‘반응이 느리다’, ‘마비되다’, ‘성씨’ 등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²⁴⁾ 이들은 원형 의미와 함께 확장 의미로서 관련성이 있으며 그 가운데 원형 의미인 ‘나무’, 즉 명사성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무의 속성’으로 확장된 ‘木’이 형용사성 어근 ‘然’과 결합하면서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로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04-나)는 형용사성 통합합성어 ‘木然’²⁵⁾이 부사격 표지 ‘地’와 결합하여 부사구로 투사된 후 사건구조화 층위의 경동사 ‘望’을 수식하면서 부사어로 생성·도출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의 분석과 달리 형용사성 통합합성어가 영형태로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地’와 결합한 형태로 도출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黎小安愁容满面地木然坐着。”(黎小安이 얼굴에 수심이 짙은 채로 멍하게 앉아 있다.)²⁶⁾처럼 부사격 표지 ‘地’와 결합하지 않고 영형태로 부사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앞의 분석처럼 ‘木然’도 내현적 형태의 형용사성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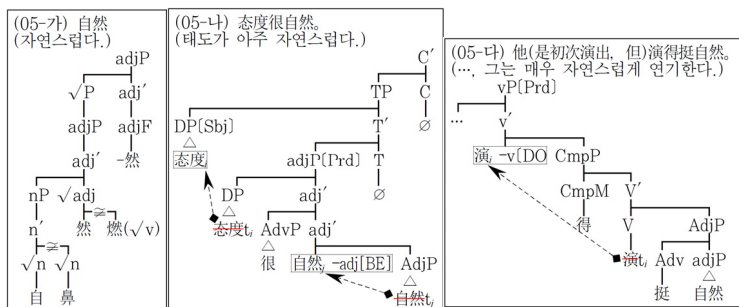
23) “상형. 즐거움을 중심으로 잘 뻗은 가지와 뿌리를 그려 ‘나무’를 형상했다. 木이 둘 셋 중첩되어 만들어진 林(수풀-림)과 森(나무 뻗뻗할-삼)은 의미를 ‘나무’의 의미가 강화한 경우에 ‘나무’의 원래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경우이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238-239쪽]

24) “【木】①树木：伐木 | 果木 | 独木不成林。②木头：枣木 | 榆木 | 檀香木。③棺材：棺木 | 行将就木。④质朴：木讷。⑤[形]反应迟钝：木然 | 木头木脑 | 他反应有点木。⑥[形]麻木：两脚冻木了 | 舌头木了, 什么味道也尝不出来。⑦ (Mù) [名]姓。”[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926쪽.]

25) “【木然】[mùrán][形]一时痴呆不知所措的样子：木然地望着远方。”[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927쪽.]

26) <http://corpus.zhonghuayuwen.org/CnCindex.aspx> (검색일: 2021. 0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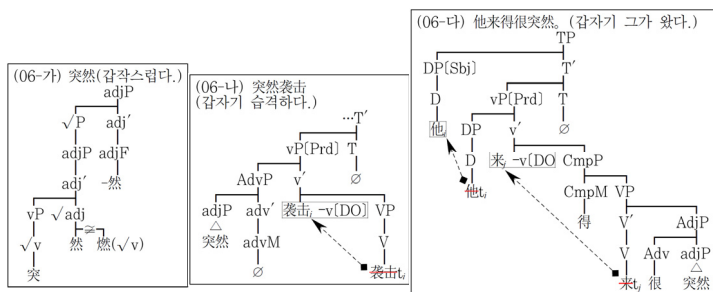
합성어로 볼 수 있다. ‘木然’에서 ‘木’을 명사인 주어로 보면 ‘나무가 그러하다’의 뜻이 되고, 명사 ‘木’을 부사어로 보면 ‘나무처럼 그러하다’의 뜻이 되고, ‘木’을 확장 의미로 적용하여 형용사성의 ‘질박하게 그러하다’, ‘마비되듯이 그러하다’ 등으로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든 통사적 연산에서 유연성을 지닌 내현적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 점은 통합합성어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05-가)는 ‘自然’이 어근구로 투사되어 다시 형용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즉, 명사성 어근 ‘自’와 형용사성 어근 ‘然’이 결합하여 형용사성 어근구로 투사된 후 형용사화 기능범주를 내현적 상태로 유지하면서 통사적 연산에서 그 특징을 드러내는 분산형태를 띠고 있다. 하영삼(2014)에 따르면 ‘自’는 “코를 그렸는데, 앞에서 본 모습”²⁷⁾의 뜻이다. 즉, ‘自’의 원형 의미는 명사 ‘코’를 뜻한다. 또 『現代漢語詞典』(第7版)은 ‘자기(自己)’,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성씨’, ‘...(로)부터’ 등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²⁸⁾ 이렇게 볼 때

27) “상형. 코를 그렸는데, 앞에서 본 모습을 그렸다. …… 코는 얼굴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가장 심한 부위이기에 개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여기에서 自己(자기), 自身(자신)이란 뜻이, 自由(자유)는 물론 自然(자연: 스스로 그러함)의 뜻까지 생겼다. 그러자 원래의 ‘코’는 소리부인 冎(줄-비)를 더해 鼻(코-비)로 분화했다. 중국인들이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와는 달리 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습관도 이와 관련된 듯 보인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532쪽]

‘自’는 원래 ‘코’의 뜻으로 쓰이다가 ‘자기(自己)’, ‘자연스럽다’ 등의 의미로 확장되어 ‘鼻(코-비)’와 가차 관계를 형성하면서 원형 의미를 잃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수형도 (05-가)에서 $\sqrt{n}(\text{自}) \cong \sqrt{n}(\text{鼻})$ 로 나타냈다. (05-나)는 형용사성 어근구 ‘自然’이 사건구조화 층위에서 경형용사구로 투사되면서 술어로 도출되고 있는 수형도이고, (05-다)는 형용사성 어근구 ‘自然’이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 형용사구로 투사된 후 다시 보격 표지와 결합하여 보어로 생성·도출되고 있는 수형도이다.²⁹⁾ 『現代漢語詞典』(第7版)에서 ‘自然’은 두 개의 올림말로 실려 있다. 하나는 [zìrán]으로 다품사어이며, 다른 하나는 [zì · rán]으로 단일 품사어이다. 본고는 단일 품사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전자를 제외시켰다. ‘自然’이 단일 품사어일 때 ‘然’을 경성으로 표시하며 그 뜻은 ‘억지스럽지 않다’, ‘어색하지 않다’ 등으로 억지스럽지 않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움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05-나, 다)는 이런 특징을 갖춘 통합합성어가 술어와 보어로 생성·도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형도이다.



- 28) “【自】①自己：自动 | 自卫 | 自爱 | 自力更生 | 自言自语 | 自娱自乐 | 自告奋勇 | 自顾不暇 | 不自量力。②【副】自然；当然：自不待言 | 公道自在人心 | 两人久别重逢，自有许多话说。③(Zì) [名]姓。#【自】[介]从；由：自小 | 自此 | 自古 | 自远而近 | 自北京出发 | 选自『人民日报』 | 来自各国的朋友。”[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1736쪽.]
- 29) “【自然】[zì · rán][形]不勉强；不局促；不呆板：态度很自然 | 他是初次演出，但演得挺自然。”[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1738쪽.]

(06-가)는 ‘突然’이 형용사성 어근구로 투사되어 다시 형용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즉, 동사성 어근 ‘突’과 형용사성 어근 ‘然’이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된 후 형용사화 기능범주를 내현적 상태로 유지하면서 통사적 연산에서 그 특징을 드러내는 분산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영삼(2014)에 따르면 ‘突’은 “개가 동굴 집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모습”³⁰⁾의 뜻이다. 또 『現代漢語詞典』(第7版)은 ‘突’을 ‘맹렬히 돌격하다’, ‘돌연히’, ‘돌기하다’, ‘굴뚝’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³¹⁾ 이렇게 볼 때 ‘突’는 ‘갑자기 튀어 나오다’라는 동사성 어근으로 투사되고 형용사성 어근 ‘然’과 결합하여 형용사성 어근구를 생성하고 있다. (06-나)는 형용사성 통합합성어 ‘突然’이 부사격 표지의 도움 없이 바로 부사구로 투사되어 경동사구 ‘袭击(습격하다)’를 수식하면서 부사어로 도출되고 있고, (06-다)는 형용사성 통합합성어 ‘突然’이 부사 ‘很’과 결합하여 형용사구로 투사된 후 다시 보격 표지와 결합하여 보어로 도출되고 있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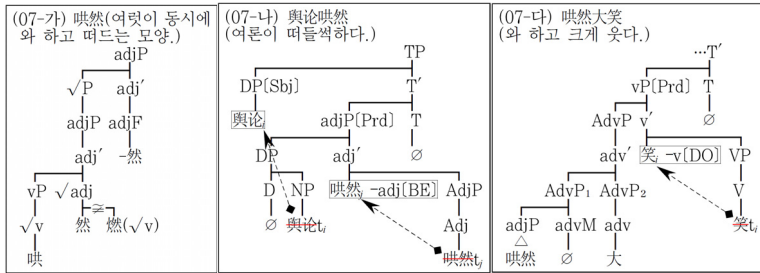
(07-가)는 ‘哄然’이 어근구로 투사되어 다시 형용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즉, 동사성 어근 ‘哄’과 형용사성 어근 ‘然’이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된 후 형용사화 기능범주를 내현적 상태로 유지하면서 통사적 층위에서 그 특징을 드러내는 분산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영삼(2014)에 따르면 ‘哄’은 “함께 소리

30) 【突】(갑자기-돌): “형성. 犬(개 견)가 의미부이고 穴(구멍 혈)이 소리부로, 개가 동굴 집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모습을 그렸으며, 이로부터 갑자기, 突發적인, 突擊하다, 격파하다 등의 뜻이 나왔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159쪽]

31) 【突】①[动]猛冲: 突破 | 突围 | 狼奔豕突. ②[副]突然: 突变 | 气温突增. ③[动]高于周围: 突起 | 突出. ④古代灶旁突起的出烟火口, 相当于现在的烟筒: 灶突 | 曲突徙薪. ⑤“突起” ③的简称: 上关节突 | 下关节突.”[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1323쪽.]

32) 【突然】[tūrán][形]在短促的时间里发生, 出乎意外: 突然袭击 | 他来得很突然.”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1324쪽.]

내어 떠들다³³⁾는 뜻이다. 또 『現代漢語詞典』(第7版)은 ‘哄’을 ‘여러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 ‘여러 사람이 동시를 소리를 내다’, ‘속이다’, ‘어르다’, ‘소란을 피우다’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³⁴⁾ 이렇게 볼 때 ‘哄’은 ‘여러 사람이 함께 소리치다’라는 동사성 어근으로 볼 수 있으며 ‘然’과 융합하여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로 도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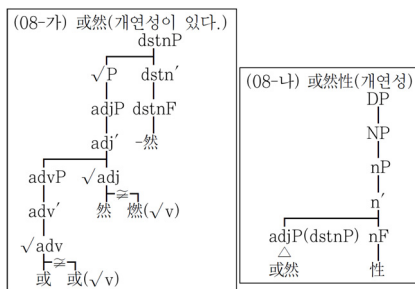


(07-나)는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 ‘哄然’이 형용사구로 투사되어 사건구조화 층위에서 경형용사구로 투사된 후 술어로 도출되고 있다. (07-다)는 ‘哄然’이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로 투사되어 영형태의 부사격 표지와 함께 부사구를 형성한 후 다시 부사 ‘大’와 함께 경동사 ‘笑’를 수식하면서 부사어로 도출되고 있다.³⁵⁾ 즉, (07-다)의 ‘哄然’은 형용사성 통합합성어이지만 ‘地’와 같은 부사격 표지의 도움 없이 내현적 유연함을 바탕으로 바로 부사어로 도출되고 있다.

33) “형성. □(입 구)가 의미부이고 共(함께 공)이 소리부로, 함께 소리 내어 떠들다는 뜻이며, 이로부터 떠들썩하다, 함께 소리치다 등의 뜻이 나왔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221쪽.)

34) “【哄】[hōng]①[拟声]形容许多人大笑声或喧哗声。②许多人同时发出声音：哄传。#【哄】[hōng][动]①哄骗：哄人 | 你别想哄我，我不信。②哄逗，特指看(kān)小孩儿或带小孩儿：她特会哄老太太高兴 | 奶奶哄着孙子玩儿。#【哄】(*闕、*闕)[hòng][动]吵闹；开玩笑：起哄 | 一哄而散。”[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538쪽.]

35) “【哄然】[hōngrán][形]形容许多人同时发出声音：輿論哄然 | 哄然大笑。”[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538쪽.]



(08-가)는 ‘或然’이 어근구조로 투사되어 다시 구별사화³⁶⁾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구별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즉, 부사성 어근 ‘或’과 형용사성 어근 ‘然’이 결합하여 어근구조로 투사된 후 구별사화 기능범주를 내현적 상태로 유지하면서 통사적 연산에서 그 특징을 드러내는 분산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영삼(2014)에 따르면 ‘或’은 “창(戈)을 들고 성곽(口)을 지키는 모습”³⁷⁾이다. 또 『現代漢語詞典』(第7版)은 ‘或’을 ‘아마도’, ‘또는’, ‘혹자(或者)’, ‘잠시’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³⁸⁾ ‘或然’의 뜻과 비교하여 볼 때 ‘或’은 원형 의미인 동사보다는 확장 의미인 ‘아마도’, ‘혹시’ 등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동사성 어근과는 연결 과정이 약하며 ‘아마도’의 부사성 어근 ‘或’와 형용사성 어근 ‘然’이 결합하여 어근구조를 생성하고 다시 구별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구별사성

36) 구별사는 크게 보면 형용사의 범주에 속하므로 본 장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現代漢語詞典』(第7版)도 “[形]属性词”로 표시하고 있다.

37) “형성. 원래는 戈(창-과)가 의미부이고 口(나라-국, 에워쌀-위)이 소리부로, 國(나라-국)의 원래 글자이며, 창(戈)을 들고 성곽(口)을 지키는 모습을 그렸다. 이후 땅을 상징하는 가로획(一)이 더해졌다. 이후 或이 ‘혹시’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자 원래의 ‘나라’라는 뜻은 다시 口을 더한 國, 土(흙-토)를 더한 域(지경-역) 등으로 분화했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757쪽]

38) “【或】①[副]或许;也许:慰问团已经起程, 明日上午或可到达. ②[连]或者②③:或多或少|不解决桥或船的问题, 过河就是一句空话|他生怕我没听清或不注意, 所以又嘱咐了一遍. ③<书>[代]指示代词. 某人;有的人:或告之曰. ④<书>[副]稍微:不可或缺|不可或忽.”[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595쪽.]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08-나)는 형용사성 통합합성어 ‘或然’이 명사화 기능범주와 결합하여 명사성 통합합성어 ‘或然性’을 생성하여 명사구, 한정사구로 도출될 가능성까지 내재적으로 갖추고 있는 분산형태를 나타낸 수형도이다.³⁹⁾ 그런데 이 ‘或然’은 “它们的真理只能是或然的, 不能是必然的。”(그런 진리는 개연적인 것일 뿐이며 필연적인 것이 될 수 없다.)(CCL)처럼 홀로 직접 술어로 쓰일 수는 없지만 ‘是…的’에 들어가서 술어가 될 수 있는 구별사의 특징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因此, 要认识我们自己或然地可以做到, 但是要肯定说它毫无疑问地会做得到, 那就不明智了。”(그러므로 우리들 스스로가 혹시 해 낼 수는 있어도 전혀 의심 없이 해 낼 수 있다고 확실히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CCL)처럼 부사격 표지 ‘地’와 함께 쓰여 부사어로 도출될 수도 있다. 이렇듯 ‘或然’은 구별사라는 내현적 특징으로 인해 통사적 연산에서 ‘是…的’나 ‘地’와 같은 형태 표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번호	올림말	한어병음	‘X+然’의 품사	‘X’의 詞性	통사적 도출
01	惘然	wǎngrán	Adj	Adj	Prd, Sbj
02	安然	ānrán	Adj	Adj	AdvP, Prd
03	枉然	wǎngrán	Adj	Adj	Obj
04	木然	mùrán	Adj	N	AdvP[/_地]
05	自然 ²	zì · rán	Adj	N	Prd, CmpP
06	突然	tūrán	Adj	V	AdvP, CmpP
07	哄然	hōngrán	Adj	V	Prd, AdvP
08	或然	huòrán	Adj(Dstn)	V→Adv	DetP, Prd[/是_的]

이상의 분석과 표의 내용을 통해 2음절 단일 품사어 ‘X+然’이 형용사일 경우 어근 ‘X’의 사성(詞性)과 상관없이 모두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로 구현되며, 통사적으로는 표지 없이 주어, 술어, 목적어, 관형어, 부

39) “【或然】[huòrán][形]属性词。有可能而不一定：或然性。”[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595쪽.]

과 형용사성 어근 ‘然’이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된 후 부사화 기능범주를 내현적 상태로 유지하면서 통사적 연산에서 그 특징을 드러내는 내현적 분산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영삼(2014)에 ‘全’은 따르면 “入(들-입)과 玉(옥-옥)으로 구성되어, ‘온전하다’라는 뜻”이다⁴⁰⁾. 또 『現代漢語詞典』(第7版)은 ‘全’을 ‘완비되다’, ‘다 갖추다’, ‘보전하다’, ‘전체’, ‘완전히’, ‘모두’, ‘성씨’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⁴¹⁾ 즉, ‘온전하다’, ‘완비되다’ 등의 형용사성 어근으로 투사되었다가 ‘然’을 만나 어근구를 형성한 후 다시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부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09-나)는 ‘全然’이 부사 속성으로 뒤에 오는 부정부사와 함께 경동사 ‘考慮’를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수형도이다.⁴²⁾ 즉, ‘全然’은 부사성 통합합성어로 다른 도움 없이 그 자체로 통사적 층위의 부사어로 생성·도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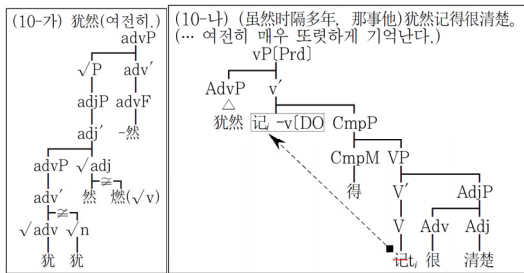
(10-가)는 ‘犹然’이 어근구로 투사되어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부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즉, 부사성 어근 ‘犹’와 형용사성 어근 ‘然’이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된 후 부사화 기능범주를 통사적 연산에서 드러내는 내현적 분산형태를 띠고 있다. 하영삼(2014)은

40) 【全】(온전할-전): “회의. 소전체에서 入(들-입)과 玉(옥-옥)으로 구성되어, ‘온전하다’는 뜻인데, 집안으로 들여 놓은(入) 玉(옥)이라는 의미를 그렸다. 고대사회에서 집 ‘안’은 특히 사람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중요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고대 중국인들이 더없이 귀중하게 여겼던 옥, 그 옥은 집안으로 들여 놓았을 때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기에 完全(완전)하다, 保全(보전)하다, 대단히 훌륭하다 등의 의미가 생겼다. 『설문해자』에서는 玉 대신 工(장인-공)이 들어간 소으로도 썼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560쪽]

41) 【全】①[形]完备；齐全：这部书不全 | 东西预备全了 | 棉花苗已出全。②保全：使完整不缺；两全其美。③[形]整个；全神贯注 | 全家光荣 | 全书十五卷。④[副]完全；都：全不是新的 | 不全是新的 | 他讲的话我全记下来了。⑤ (Quán) [名]姓。”[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1082쪽.]

42) 【全然】[quánrán][副]完全地 (多用于否定式)：他一切为了集体, 全然不考虑个人的得失。”[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1083쪽.]

‘犹’를 “원숭이류에 속하는 짐승(犬)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비슷하다, 같다는 뜻이 나왔고, 또 ‘오히려’라는 부사로도 쓰였다”라고 풀이하고 있다⁴³⁾. 또 『現代漢語詞典』(第7版)은 ‘犹’를 서면어로서 ‘같다’, ‘여전히’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⁴⁴⁾ 이렇게 볼 때 ‘犹然’은 ‘원숭이류의 짐승’인 명사로 투사되지 못하고 ‘여전히’ 등의 확장 의미인 부사성 어근으로 투사되었다가 형용사성 어근 ‘然’을 만나 어근구를 형성한 후 다시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부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도출하고 있다. (10-나)는 ‘犹然’이 부사구로 투사된 후 사건구조화 층위에서 경동사 ‘记’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생성·도출되고 있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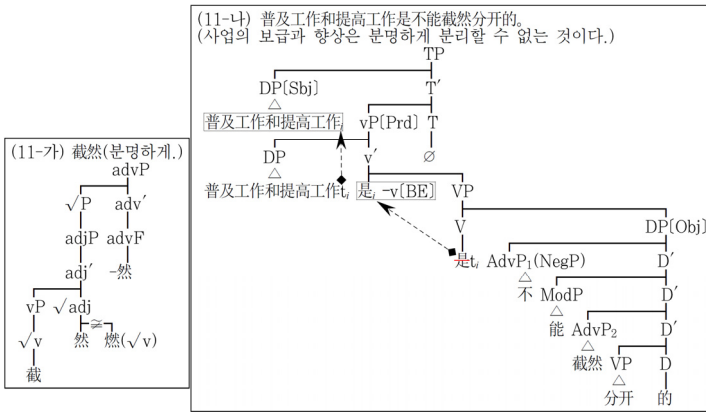
(11-가)는 ‘截然’이 어근구로 투사되어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부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즉, 동사성 어근 ‘截’과 형용사성 어근 ‘然’이 결합하여 형용사성을 띤 어근구로 투사된 후 부사화

43) 【猶】(오히려/갈을-유): “형성. 犬(개-견)이 의미부고 酋(두목-추)가 소리부로, 원숭이류에 속하는 짐승(犬)의 일종으로 다리가 짧고 질벽이나 나무를 잘 탔다고 한다. 이후 비슷하다, 같다는 뜻이 나왔고, 또 ‘오히려’라는 부사로도 쓰였다.”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221쪽]

44) “【犹】①<书>如同: 虽死犹生 | 过犹不及. ②<书>[副]还; 尚且: 记忆犹新 | 困兽犹斗. ③ (Yóu) [名]姓.”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1584쪽.]

45) “【犹然】[yóurán][副]仍然; 照旧: 虽然时隔多年, 那事他犹然记得很清楚 | 大家都离去了, 只有她犹然坐在那里不走.”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1585쪽.]

기능범주를 통사적 연산에서 드러내는 내현적 분산형태를 띠고 있다. 하영삼(2014)은 ‘截’를 “佳(새-추)가 의미부이고 戔(다칠-재)가 소리부로, ‘끊다’는 뜻이다.”⁴⁶⁾라고 하고 있다. 또 『現代漢語詞典』(第7版)은 ‘截’을 ‘절단하다’, ‘막다’, ‘마감하다’, ‘나무토막 따위를 세는 단위’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⁴⁷⁾ 즉, ‘截然’은 ‘끊다’라는 동사성 의미가 동사성 어근으로 투사되었다가 형용사성 어근 ‘然’을 만나 어근구를 생성한 후 다시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부사성 통합합성어로 도출되고 있다.



(11-나)에서 ‘截然’은 사건구조화 층위에서 경동사 ‘是’의 목적어인 한정사구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부사구이다.⁴⁸⁾ 다시 말하면 ‘是’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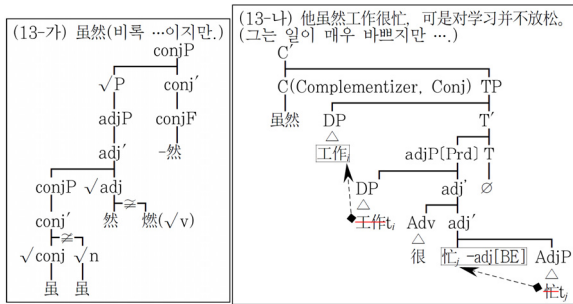
46) 【截】(끊을-질): “형성. 佳(새-추)가 의미부이고 戔(다칠-재)가 소리부로, ‘끊다’는 뜻이다. 소전체에서는 戈(창-과)가 의미부이고 雀(참새-작)이 소리부였는데, 자형이 변해 지금처럼 되었다. 戈(戈)로 끊다는 뜻이며, 이로부터 나가지 못하도록 막다는 뜻도 나왔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565쪽]

47) “【截】①[动]切断; 割断(长条形的东西): 截头去尾 | 把木条截成两段。②(截儿)[量]段: 一截儿木头 | 话说了半截儿。③[动]阻拦: 截留 | 快把马截住, 别让它跑了。④截止: 截至。⑤(Jié) [名]姓。”[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668쪽.]

48) “【截然】[jiérán][副]形容界限分明, 像割断一样: 截然不同 | 普及工作和提高工作

은 ‘忽’를 ‘주의하지 않다’, ‘중시하지 않다’의 형태소, 부사인 ‘갑자기’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⁵¹⁾ 즉, ‘忽’는 ‘잊어버리다’라는 의미의 동사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갑자기’라는 부사성 어근으로 투사되었다가 형용사성 어근 ‘然’을 만나 어근구를 형성한 후 다시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부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12-나)의 부사 ‘忽然’은 부사구로 투사된 후 사건 구조화 층위의 경동사 ‘下’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도출되고 있다.⁵²⁾

2. 접속사, 동사, 명사의 생성과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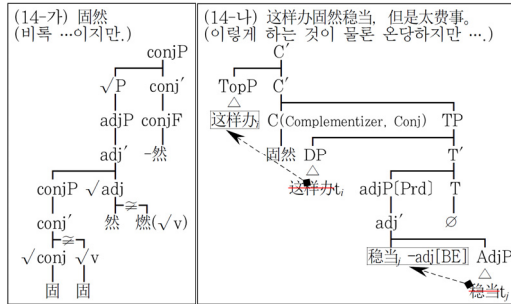
(13-가)는 ‘虽然’이 어근구로 투사되어 접속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접속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즉, 접속사성 어근 ‘虽’와 형용사성 어근 ‘然’이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된 후 접속사화 기능

‘갑자기’라는 의미도 나왔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759쪽]

51) “【忽】[hū]①不注意；不重视：忽略 | 忽视 | 疏忽。② (Hū) [名]姓。#【忽】[hū][副]忽而：天气忽冷忽热 | 油灯被风吹得忽明忽暗。#【忽】[hū][量]计量单位名称, a) 长度, 10忽等于1丝。b) 质量或重量, 10忽等于1丝。”[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548쪽.]

52) “【忽然】[hūrán][副]表示情况发生得迅速而又出乎意料；突然：他正要出去, 忽然下起大雨来了。”[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549쪽.]

범주를 통사적 연산에서 드러내는 내현적 분산형태를 띠고 있다. 하영삼(2014)에 따르면 ‘虽’는 “虫(벌레-충)이 의미부고 唯(오직-유)가 소리부로, 벌레(虫)의 이름으로 도마뱀처럼 생겼으나 그보다는 크다.”라고 하면서 이후 ‘어기조사’로 쓰이기도 하고 ‘의문대사’로 가차되었다고 풀이하고 있다.⁵³⁾ 또 『現代漢語詞典』(第7版)은 ‘虽’를 접속사 ‘비록’, ‘...일지라도’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⁵⁴⁾ 즉, ‘虽’는 ‘벌레 이름’의 원형 의미보다는 이후에 파생된 의미인 ‘비록’ 등의 접속사성 어근으로 투사되었다가 형용사성 어근 ‘然’을 만나 어근구를 형성한 후 다시 접속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접속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13-나)의 ‘虽然’은 접속사-보문사(C)-로서 뒤에 오는 시제사구(TP)를 보충어로 취하여 결합한 후 보문사구로 생성·도출되고 있다.⁵⁵⁾



53) “형성. 虫(벌레-충)이 의미부고 唯(오직-유)가 소리부로, 벌레(虫)의 이름으로 도마뱀처럼 생겼으나 그보다는 크다. 이후 唯와 같이 쓰여 어기조사로 쓰였고, ‘누구’라는 의문대명사로 가차되었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374쪽]

54) “【虽】[连]①虽然：事情虽小，意义却很大 | 三月天气，虽没太阳，也不觉得冷了 | 房子旧虽旧，倒还干净。②即使：为人民而死，虽死犹荣。”[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1252쪽.]

55) “【虽然】[suī rán][连]用在上半句，下半句往往有“可是、但是”等跟它呼应，表示承认甲事为事实，但乙事并不因为甲事而不成立：现在我们虽然生活富裕了，但是还要注意节约 | 他虽然工作很忙，可是对学习并不放松。注意文言里“虽然”承接上文，稍微停顿，等于白话“虽然如此”的意思。”[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1252쪽.]

(14-가)는 ‘固然’이 형용사성 어근구로 투사되어 접속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접속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즉, 접속사성 어근 ‘固’와 형용사성 ‘然’이 결합하여 형용사성 어근구로 투사된 후 접속사화 기능범주를 통사적 연산 과정에서 드러내는 내현적 분산형태를 띠고 있다. 하영삼(2014)은 ‘固’를 “□(나라 국·에워쌀 위)가 의미부이고 古(옛 고)가 소리부로, 옛것에 둘러싸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하면서 ‘고루함’, ‘완고함’으로 풀이하고 있다.⁵⁶⁾ 또 『現代漢語詞典』(第7版)은 ‘固’를 ‘튼튼하다’, ‘견고하게 하다’, ‘단호히’ 등으로 풀이하면서 서면어로 ‘원래’, ‘본래’뿐 아니라 심지어 ‘비록…이지만’의 접속사로까지 풀이하고 있다.⁵⁷⁾ 이를 종합하면 ‘固然’의 ‘固’는 ‘견고하다’ 등의 동사성 의미와 함께 확장 의미인 ‘비록…이지만’의 접속사성 어근도 내포한 상황에서 형용사성 어근 ‘然’을 만나 어근구를 형성한 후 다시 접속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접속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14-나)의 ‘固然’은 (13-나)처럼 접속사-보문사(C)-로서 뒤에 오는 시제사구(TP)를 보충어로 취하여 결합한 후 통사적 연산에서 보문사구로 생성·도출되고 있다.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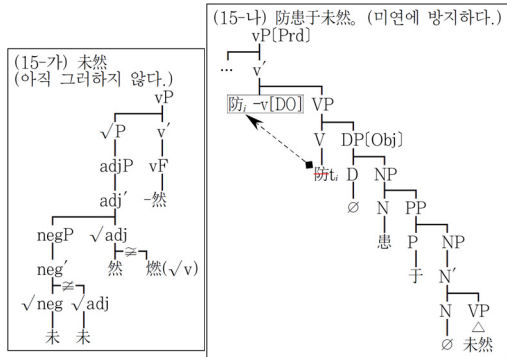
(15-가)는 ‘未然’이 형용사성 어근구로 투사되어 동사화 기능범주 ‘-然’

56) 【固】(굳을-고): “형성. □(나라 국·에워쌀 위)가 의미부이고 古(옛 고)가 소리부로, 옛것에 둘러싸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으로부터 고루함과 頑固함이나 固執을 그렸다. 옛것에 얽매어 새로운 사고를 하지 못함은 바로 굳음이요, 굳음은 바로 ‘노자’의 말처럼 죽어가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052쪽]

57) “【固】[gù]①结实；牢固；稳固 | 加固 | 本固枝荣, ②坚硬；固体 | 凝固, ③坚决地；坚定地；固辞 | 固请 | 固守阵地, ④使坚固；固本 | 固防, ⑤<书>鄙陋；固陋, ⑥同“痼”；固疾 | 固习, ⑦ (Gù) [名]姓. #【固】[gù]<书>①【副】本来；原来：固有 | 固当如此 | 固所愿也, ②【连】固然：坐车固可，坐船亦无不可.”[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470쪽.]

58) “【固然】[gùrán][连]①表示承认某个事实，引起下文转折：这样办固然稳当，但是太费事, ②表示承认甲事实，也不否认乙事实：意见对，固然应该接受，就是不对也可作为参考.”[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471쪽.]

과 융합하여 동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즉, 부정사성 어근 ‘未’와 형용사성 어근 ‘然’이 융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된 후 동사화 기능 범주를 내현적 상태로 유지하면서 통사적 연산에서 그 특징을 드러내는 분산형태를 띠고 있다. 하영삼(2014)은 ‘未’를 “木(나무-목)에 가지가 하나 더해진 형상으로, 나무(木)의 가지와 잎이 무성함을 말했다.”라고 하면서 ‘어둡다’는 뜻도 갖게 되었다고 풀이하고 있다.⁵⁹⁾ 또 『現代漢語詞典』(第7版)은 ‘未’를 부정사 ‘없다[沒]’, ‘아니다[不]’ 등의 부정 의미로 풀이하기도 하고 ‘간지의 여덟 번째 지지’라는 뜻도 제시하고 있다.⁶⁰⁾ 즉, ‘未然’의 ‘未’는 부정 부사성 어근으로 투사되었다가 형용사성 어근 ‘然’을 만나 어근구를 형성한 후 동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동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9) 【未】(아닐-미): “지사. 木(나무-목)에 가지가 하나 더해진 형상으로, 나무(木)의 가지와 잎이 무성함을 말했다. 무성하게 자란 나무는 햇빛을 가리므로 ‘어둡다’는 뜻을 갖게 되었는데, 이후 간지자로 가차되었고, 또 ‘아니다’는 부정사로 쓰이게 되면서 원래 뜻은 상실했다. 그러자 원래 뜻은 日(날-일)을 더한 昧(새벽-매)로 분화했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250-251쪽]

60) “【未】[副]①没(跟“已”相对): 未知 | 未婚 | 未成年 | 未老先衰 | 惊魂未定 | 健康仍未恢复。②不: 未敢苟同 | 未可厚非。#【未】[名]地支的第八位。参看420页【干支】。”[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1367쪽]

(15-나)의 ‘未然’은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 전치사의 보충어로 나타나고 있다.⁶¹⁾ 전치사구에서 전치사의 보충어는 기본적으로 명사성이 투사되는데 (15-나)는 동사 ‘未然’이 영형태로 명사구의 중간 계층(N')이 되면서 명사구로 도출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未然’을 “1. (주로 ‘미연에’ 꼴로 쓰여) 어떤 일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때. 미연에 예방하다. 2. 앞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함.”⁶²⁾으로 풀이하면서 ‘명사’로 표시하고 있다. 1의 예문 “미연에 예방하다”에서 ‘-에’라는 격조사가 붙어 ‘명사성’이 겹으로 드러나지만 중국어는 동사 ‘未然’이 영형태의 명사성 표시와 결합하여 명사구로 도출되는 내현적 분산형태를 띠고 있다.⁶³⁾

그 외 명사 용법으로 제시된 ‘孜然’이 있는데, 식물의 한 종류인 ‘커민(cumin).[미나리과의 식물로, 학명은 CuminumcyminumL.임.]’ 또는 ‘커민(cumin)의 씨’의 뜻으로 위구르어에서 음역한 것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만 하고 분석은 생략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2음절 단일 품사어 ‘X+然’은 형용사 외에도 부사, 접속사, 동사의 용법이 있는데 이들은 어근 ‘X’의 사성(詞性)-원형 의미이든 확장 의미이든과 상관없이 부사성, 접속사성, 동사성 통합 합성어로 구현된다. ‘X+然’의 ‘-然’은 형용사성 기능범주뿐만 아니라 부사성, 접속사성, 동사성의 기능범주 역할, 즉 형용사 접미사뿐만 아니라 부사, 접속사와 동사의 접미사로도 쓰이고 있다. 통사적으로는 통합 합성어의 내현적 분산형태 특성에 따라 부사어, 보문사구의 핵어, 목적어 등으로 도출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1) “【未然】[wèirán][动]还没有成为事实：防患于未然。”[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1367쪽.]

62)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검색일: 2021. 01. 31.)

63) “历史之回顾有已然, 亦仍有未然。”(CCL) 이 예문도 추가된 형태의 도움 없이 동사 ‘已然’, ‘未然’과 목적어로 도출되고 있다. ‘已然’은 『現代漢語詞典』(第7版)에 ‘명사’와 ‘부사’로 풀이하고 있지만 부사가 목적어로 쓰일 수는 없으므로 앞의 예문에서 ‘동사’가 목적어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번호	올림말	한어병음	‘X+然’의 품사	‘X’의 詞性	통사적 도출
01	全然	quánrán	Adv	Adj	AdvP
02	犹然	yóurán	Adv	N→Adv	AdvP
03	截然	jiérán	Adv	V	AdvP
04	忽然	hūrán	Adv	V→Adv	AdvP
05	虽然	suīrán	Conj	N→Conj	C
06	固然	gùrán	Conj	V→Conj	C
07	未然	wèirán	V	Neg	DP
08	孜然	zīrán	N	Adj	N

IV. 결론

본고는 『現代漢語詞典』(第7版)에 실린 2음절 단일 품사어 ‘X+然’ 구조를 전수 조사하여 형태·통사적 특징을 분산형태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구명(究明)하였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대 중국어 ‘X+然’ 구조에 보이는 단일 품사어는 형용사, 구별사, 부사, 접속사, 동사 등이 있으며, 그중 형용사가 가장 많다. 기존 학설처럼 ‘-然’이 형용사와 부사의 접미사로 쓰일 뿐 아니라 동사, 구별사, 접속사의 접미사로도 쓰임을 발견했다.

둘째, ‘X+然’은 형태론적 낱말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어근구(Root Phrase)로 투사되어 통합합성어(synthetic compound)를 형성한 후 통사적 연산에서 내현적, 분산적 특징을 발현하며 생성·도출된다.

결론적으로 ‘X+然’은 ‘然’이 접미사로서 곡용과 활용 없이 기능범주 역할을 하면서 형태·통사의 내현적(covert) 분산형태(distributed morpheme) 방식으로 생성·도출되고 있는 통합합성어이다.

■ 참고문헌

- 김종호, 『중국어 최소주의 생성문법 13강』,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콘텐츠원, 2018.
-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 董琨, 『古代漢語漫談』, 齊魯書社, 1986.
- 楊伯俊·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1992.
- 廖序東, 『文言語法分析』, 上海教育出版社, 1981.
- 蔣禮鴻·任鐘善, 『古漢語通論』, 浙江教育出版社, 1984.
- 張貽惠, 『古漢語語法』, 湖北人民出版社, 1957.
- 趙元任著, 丁邦新譯, 『中國話的文法』, 臺灣學生書局, 1994.
- 周秉鈞, 『古漢語綱要』, 湖南人民出版社, 1978.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 蒲立本, 『古漢語語法綱要』(孫景濤譯), 語文出版社, 2006.
- 許仰民, 『古漢語語法』, 河南大學出版社, 1988.
- 박소영, 「한국어 통합합성어의 통사구조와 형태-통사론의 접면」, 『생성문법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생성문법학회, 2011.
- 박소영, 「분산형태론의 이론적 동향과 한국어 문법」, 『우리말 연구』 49집, 우리말학회, 2017.
- Halle, M. & A. Marantz, *Distributed morphology and the pieces of inflection*, K. Hale & S. J. Keyser(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MIT Press, 1993.
- Halle, M. & A. Marantz, *Some key features of distributed morphology*,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994.
-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검색일: 2021. 01. 05.)
- <http://corpus.zhonghuayuwen.org/>(검색일: 2021. 01. 31.)
-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검색일: 2021. 01. 22.)

❖ ABSTRACT

The Generation and Derivation of Unipartite
Words in the Parts – of – Speech ‘X + ran 然’
(Two Syllables) in Modern Chinese

Chang, Ho–Deug
Dankook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identify the morphological and syntactic features of the two-syllable structure ‘X+ran(然)’(unipartite words of parts-of-speech) and its generation and derivation within modern Chinese.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adjectives, distinctives, adverbs, conjunctions, verbs, and nouns in modern Chinese ‘X+ran(然).’ Contrary to existing arguments, it was found that ‘ran(然)’ of ‘X+ran(然)’ not only functions as a suffix in adjectives and adverbs, but also functions as a suffix for verbs, distinctives, and conjunctions.

Second, ‘X+ran(然)’ does not function solely with the morphological features of structuralism, but rather generates and derives syntactic structures flexibly after generating the synthetic compound words through the generation and projection of the Root Phrase.

In conclusion, ‘X+ran(然)’ consists of covert synthetic compounds of distributed morphology which has morphological and syntactic features, and is connected to syntactic layers in order to express its identity.

Key Words : Modern Chinese, Unipartite words of parts-of-speech,
X+ran(然), Two-syllable wordss, Generation, Derivation

- 논문접수일 : 2021. 02. 10
- 심사완료일 : 2021. 03. 14
- 게재확정일 : 2021. 03. 15

